쌍용 25주년 기념 특집

쌍용四半世紀
- 새로 쓰는 百年史

신뢰와 혁신으로 쌓아 온 쌍용건설 역사의 발자취

출범 1977~1981

쌍용건설은 1977년 10월 18일 출범해 쌍용양회 동해공장 560만톤 증설에 참여함으로써 건설의 첫발을 내딛었으며, 건설기술의 선진화와 시장의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해 동남아 시장 개척에 나섰다.

도전과 개척 1982~1984

싱가포르에서 래플즈 시티공사를수주하면서일약 세계적인 건설회사로 발돋움하며 동남아 시장을확고히구축하게 되었다. 84년부터 남광토건을 위탁 경영한 후 회사를 인수해 쌍용그룹의 일원으로 새 출발하게 하는 한편, 국내에서도건설사업을본격적으로전개했다.

도약과 성장 1985~1992

국내 수주공사의 비약적인 증가로 국내 수주가 창립이후 줄곧우위를유지해오던해외수주를앞질렀고 매출면에서도 역전함으로써 비교적 안정된 국내 사업의토대위에서 지속적인성장을 추구하게되었다.

혁신과 발전 1993~1996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93년부터 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온 쌍용건설은건축, 주택, 토목, 플랜트, 해외사업등부문간 고른성장을바탕으로마침내 95년에 국내 도급순위가 7위에 오르고 매출 1조원을 달성해, 명실상부한대형건설사로자리매김했다.

재도약의 모색 1997~2001

호텔, 고급아파트, 첨단오피스빌딩등해외고급건축분야 시공실적 1위 기업인 쌍용건설은 해외에서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21세기형 최첨단 아파트 쌍용스윗닷홈을 선보여 국내 주거문화를 선도했으며,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김포대교, 광안대로등대형국책사업을수행하며사회기반건설에기여했다.

새로운 시작 2002~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닥친 시련기를 극복해 가고 있는 쌍용건설은 앞으로도 건설 전부문에 걸친 기술개발을 통해고도의기술력을축적, 고품질시공은물론연구개발을 통한 첨단 신기술 개발에 주력해 세계 일류건설사로성장해나갈것이다.

쌍용건설!
꿈★은 이루어진다

쌍용건설이 창립 25주년을맞아 10월 18일경기도양평에위치한남한강연수원에서 600여명이참석한가운데기념식및행사를가졌다.

전국에서모인전직원들이기획/지원부문, 국제/기술부문. 강원현장대표, 건축부문, 경상현장대표, 토목부문 등 여섯팀으로나누어축구경기와 전략줄다리기, 장애물이어달리기등다양한행사와뜨거운응원전을펼쳤다. 울고웃으며지나온25년의세월동안한마음한뜻으로뭉친쌍용건설의가족들을만나본다.

쌍용건설 창립 25주년 기념식 및 체육대회

쌍용건설은10월 18일경기도양평남한강연수원에서김석준회장과 오영황감사및본 · 지사임직원과강원 · 경상현장대표등총 600여명이참석한가운데창립25주년기념식및체육대회를개최했다.

김석준회장은기념사를통해창립사반세기를맞이하는감회를밝힌 뒤“ 워크아웃의마무리가예정돼있는올해는지난4년간의 노력을통해마련된정상화의기반위에실질적인성과를이루어내야만하는해 ”라며“ 우선 최우선 과제인 재무구조 개선작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전력을기울이고지속적인내실경영을통한안정성장기조유지및급변하는환경에적합한새로운시스템구축에최선을다하자 ”고당부했다. 또한“ 얼마남지않은올해를잘마무리해앞으로의 25년, 더나아가다음 100년을위한기반을다지는뜻깊은해가되도록하자 ”고강조했다.

한편 김성한 노사협의회 위원장은 노사협의회 발족 3주년을 맞이하여 뉴스타트(new start)운동을 공식 선언하고“ 우리 모두 지난 25년을 거울삼아, 공정하고투명한인사, 전사우의주인의식제고, 새로운노사관계정립등으로기초를다시세우고명실상부한쌍용건설의금자탑을 쌓아 가자. ”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25년 동안 근속한 김주용 부장을비롯해 20년근속자 18명과 15년근속자 11명, 10년근속자 42명등장기근속자총 72명에대한포상이있었다.

창립 기념식이후 개최된 체육대회에서는 토목부문이 총 6개팀이 출전한 부문별 축구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건축부문과 기획/지원부문이 각각 전략줄다리기와 직급별 장애물 릴레이에서 우승했다. 또토목공사부의 정재기 과장이 최우수 선수상, 재경부 이동영 대리가 감투상수상자로선정돼트로피와상금을받았다.